

# 행동 따르지 않는 깨달음은 허깨비 놀음

## 종하 스님

(관음사 주지)

관악산 관음사 가는 길은 사당동에서 과천으로 이 어지는 남태령 초입에서 우측으로 밀집된 주택가 골목을 따라 구불구불한 길이다. 방금 터진 목련꽃의 우윳빛 미소가 담장을 넘어 와 길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골목이 끝나는 곳에서 산길이 시작됐다. 길가에 설치된 운동기구에서는 사람들이 건강을 다지고 나무들은 새 움을 틔우느라 뜨거운 숨을 내뿜고 있었다. 무더기무더기 붉은 진달래가 한껏 피어 있는 숲은 봄금 주택가를 지나 왔다는 기억을 아득하게 했다. 선지식을 찾아 가는 길은 위치와 상관없이 아름답지만 했다.

그렇게 봄날 아침을 감상하며 관음사를 오르는 동안 '사람 사는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관음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막상 키가 훤히 훤히 일 주문을 지나 도랑에 들어서면서 생각을 고쳤다. '도랑 가까운 곳에 사람 사는 마을이 있구나'로.

황폐해진 관음사를 40여 년 동안 온갖 공력을 들여 이토록 청정한 도량으로 가꾼 주역은 종하(鍾夏) 스님이다. 절 마당에 이르자 몇 개의 현수막이 눈을 끌어 당겼다. 4월 17일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와 산사음악회'가 열리나 보다. 최근 서울의 봉은사와 조계사 법회에 초청되어 법문을 한 종하 스님은 "보시와 나눔의 삶이야말로 가장 불자다운 생활 방식"이라고 역설했다. 경로잔치와 산사음악회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선물하려는 뜻일 게다.

또 하나의 현수막은 <금강경> 강좌 안내. 지나가는 종무원에게 물으니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열리는 <금강경> 강좌에는 100여명의 불자들이 모인다고 했다. 적지 않은 수다.

"주지 스님께서 직접 강의 하시는데 그 정도 모이는 것은 당연하죠."

종무원의 한 마디에 긴 세월 도량을 가꾸면서 스님과 신도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 했는지 짐작됐다. 명부전에 붙은 단정한 요사채에 깔끔한 객방이 있고 그곳에서 종하 스님을 보았다.

-요즘 서울의 큰 절에서 연거푸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닌 듯합니다. 법회 가 보신 소감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봉은사나 조계사나 다 청을 하기에 응했을 뿐입니다. 뭐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니 대중들 앞에서 요긴한 얘기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느낀 것은 있어요.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의 연령이 너무 높다는 것 말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이 없는 법회는 불교의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린이나 청소년 법회가 이 절 저 절에서 왕성하게 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교가 젊어지지 않으면 어쩌단 겁니까? 포교를 열심히

하지 않은 과보가 무엇인지 다들 알면서..."

종하 스님은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약한 것을 가장 안타까운 일로 꼽았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생활을 보장해 주면서 전문적으로 법회를 활성화 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수직과 전문가 그룹 등을 위한 포교 인프라의 부족도 지적하며 포교 현장의 인적자원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종단 전체가 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며 중앙종무기 관의 업무 지향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다선 중앙총회의원이라는 기록(9선, 제4대~12대)을 갖고 계신데, 오늘날의 종단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종단의 난맥상을 보면서 나도 책임을 느낍니다.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지금 혁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게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큰 겁니다. 지금대로 가면 절망적이라곤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종단의 종진과 원로들이 대부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도덕과 청정성이 조계종 승단의 뿌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흔들려거든요. 근자에 승단이 세상을 향해 보여 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든 부패와 부조리를 청산하려

판(事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판과 사판을 둘이 아닙니다. 한 판입니다. 구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애써 구분하니까 사상(四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히게 되고 권력이나 금전의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심하면 출가 목적도 잃어버려요.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외면해버리는 경우도 다 그런 분별심에서 생기는 겁니다. 참된 이판 속에 사판이 존재하고, 제대로 된 사판이면 이판을 총섭 합니다. 사사무애(事事無礙)요 이사원융(理事圓融)이 되어야 합니다. 이판이다 사판이다 구별하는 것 자체가 비불교적입니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분별적 사고가 승단의 유연성을 마비시킵니다. '사'를 못하는 사람은 '이'에도 뒤떨어집니다. '이'를 이론 사람이라고 '사'를 무시하고 살 수도 없고요. 이 둘을 둘이 아니게 원용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단의 일도 그렇고 개인의 수행도 그렇습니다. 10.27 법난 이후 우리가 경험 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당시 선방에서 정진하던 스님들이 중앙으로 올라와 종무행정을 맡았는데 대부분 실패 했거든요. 또 행정 사무만 보면 스님이 선방에 방부를 들고 들어 가면 한동안은 무지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한쪽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한쪽도 안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판과 사판을 두 판으로 볼 것이 아니라

### 보시와 나눔의 실천이 불자다운 삶

### 상벌 엄격해야 청정유지 승풍진작

### 포교 인적자원 확보 특단조치 필요

고 하는데, 승단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할 집단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겁니다. 출가의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선거제도에서 기인하는 폐해들이 승단을 추락시키는 데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 종하 스님의 지적이다. 대중공사의 전통을 살려 교구분사 주지나 총무원장 등은 추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대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지금의 폐해를 일소시킬 것이니 그게 훨씬 불교다운 제도라는 것이다. 물론 승단 구성원들이 세속적 욕망을 줄이고 출세간의 공심(空心)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할 일이다. 종하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비판하는 스님은 사투 진지했다.

-생활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 패턴도 매우 다양해지는데 비해 불교는 이판(理判)과 사

공극에서는 한 판이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에 확실히 하면 '사'가 따르고 '사'에 확실히 하면 '이'가 따르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알면서 속아 주는 경우와 몰라서 속는 경우가 있다. 종하 스님은 알면서 속아 주는 것은 '자비'가 될 수 있지만, 모르고 속는 것은 '무명'에 갇힌 것이라고 했다. 속는 것은 같지만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천지현격이다. 이판과 사판도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이사(理事)의 어느 것이든 확실히 않으면 속아도 속는 줄을 모르는 것이 고 어느 것이든 확실히 하면 자비를 베풀어 속아주는 것이란 것. 그러니 이판과 사판을 둘로 나눌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확실히하도록 정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자세야말로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존립하는 목적이고 길이 되어야 한다고 종하 스님은 거듭 강조했다.



종하 스님은 1958년 해인사 고봉스님 문하로 출가한 종하 스님은 범어사 강원을 나와 통도사 범암사 등 선원에서 은사로부터 받은 '이뉘꼬' 화두를 참구했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하고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과 부원장, 개혁회의 부의장, 승가학원 이사 등을 역임했다. 중앙총회 제4대부터 12대까지 총회의원을 역임하며 제9대와 10대에서는 의장을 맡았다. 불교방송 이사장을 거쳐 현재 이사이며 관악산 관음사 주지다.

##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 燃燈祝祭 Lotus Lantern Festival

# 연등축제

## 2009년 4월 25일 반월당

- 문화체험 한미당: 오전 10시~
-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오후 2시
- 법요식: 오후 6시
- 제등행진: 오후 7시
- 달구벌회향 한미당: 오후 8시 30분

봉축탑점등식  
4월 11일(토) 오후 4시~  
국채보상공원

대구광역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TEL. 053) 623-6388